

2008년 4월 | 제3호

Goodwill
Industries of Korea

자선이 아닌 기회를!

굿윌코리아

발행처 굿윌코리아 사업본부 발행일 2008년 4월 24일 편집 및 기획 김민기, 전지열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27-1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굿윌코리아 사업본부 전화 02-389-7340 팩스 02-353-5404



Contents

1. 굿윌코리아 창립자 국제로터리 글로벌 서비스상 수상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2. 세계 속의 굿윌
3. 굿윌코리아 비전 발전하는 굿윌, 변하는 사회
빈 그릇, 넘치는 그릇
기부 이야기
4. 굿윌이 그리는 세상 굿윌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행복은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5. 굿윌 소식 굿윌 이모저모



부산/서울/수원굿윌에서 사용가능

2,000원

1회 방문시 한 장의 쿠폰 사용
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유효기간 2008년 6월 30일까지



부산/서울/수원굿윌에서 사용가능

2,000원

1회 방문시 한 장의 쿠폰 사용
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유효기간 2008년 6월 30일까지



● 부산 굿월을 후원하는 업체

- 그 외 업체 및 단체는 다음에 계속 올려집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부산 9개 지점

(주)가인트레이딩

대표이사 김 경 태 | tel.02)3453-0881
http://gaintrading.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4-50 가정, 생활)의류, 신발, 잡화

부산음악사랑회

회장 한 성 권 | tel.051) 529-6536

부산대동교회

담임목사 황 성 훈
부산시 남구 대연5동 329-16번지 tel.051) 628-3709

**국제로타리3660지구 제주 제03지역구
제주 오라로타리클럽**

회장 반석 고 상 호 | tel.064) 713-3661

(주)일산 여사원회

대표이사 오 택 기 | tel.051)301-0303
http://www.ilsan-ind.co.kr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713-10 전자제품부품 생산전문업체



(주)세정 인디안

대표이사 박 장 호 | tel.051-580-3333
http://sejung.co.kr/network/sejun21.asp

자오나눔선교회

대표 양 미 동 전도사.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211-1번지
(031) 356-8674, 356-8675, 356-8676, 017-350-0112.
http://cafe.daum.net/jaonanum

용인향상교회

담임목사 정 주 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509번지 tel.031) 282-2311
fax. 031)282-2315 tp://www.hyangsang.com/prog/home/home.php

**국제로타리3660지구 부산 제04지역구
오성로타리클럽**

회장 도란 임 춘 이 | tel.051) 633-5526

●●● 수원 굿월을 후원하는 업체



**수원중앙침례교회
실업인위원회**

꿈이 자라는 문화백화점 중앙 문화센터

tel.031-229-9071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이 명 필 | tel.031-484-3545



(주)네오팜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기업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버드내노인복지회관



(주) RNL BIO 대표이사 라정찬

발행처 굿월코리아 사업본부 발행일 2008년 4월 24일 편집 및 기획 김민기, 전지열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27-1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굿월코리아 사업본부 전화 02-389-7340 팩스 02-353-5404



Contents

1. 굿월코리아 창립자 국제로터리 글로벌 서비스상 수상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2. 세계 속의 굿월
3. 굿월코리아 비전 발전하는 굿월, 변하는 사회 빈 그릇, 넘치는 그릇 기부 이야기
4. 굿월이 그리는 세상 굿월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행복은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5. 굿월 소식 굿월 이모저모

부산/서울/수원굿월에서 사용가능

2,000원

1회 방문시 한 장의 쿠폰 사용
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유효기간 2008년 6월 30일까지

부산/서울/수원굿월에서 사용가능

2,000원

1회 방문시 한 장의 쿠폰 사용
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유효기간 2008년 6월 30일까지



굿윌코리아 창립자
강 영 우 박사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굿윌 코리아의 창립자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차관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영우 박사가 사회봉사단체인 국제로터리재단이 회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07-08년 휴머니티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에서 성장했으며 어린 시절 축구를 하다 다친 사고로 인해 실명을 하여 시각장애인이 된 강 박사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 옹호자로서 힘쓴 그간의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강 박사는 1992년에도 동 재단이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수여한 75 Candles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강 박사는 이와 더불어 모교인 피츠버그대 총동문회로부터 2008년도 올해의 동문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은인 중 한 분인 딕 손버그 전 법무장관의 추천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힌 강 박사는 1972년 연세대를 졸업한 뒤 피츠버그대로 유학, 교육학 및 심리학 석사를 거쳐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3월 29일 피츠버그대 카네기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박사는 2001년부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른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미국 내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5400만명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 자립, 권리 증진 등의 문제를 다룬 보고서로 작성하여

3개월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제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는 또한 1992년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회장직을 맡아 미국과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강영우 박사에 의해 도입되어 설립된 굿윌 코리아는 현재 서울, 부산 및 수원에서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2008년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의 자립과 재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시 두 데나리온 선교회 및 익산시 고현교회를 비롯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이후에도 강영우 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부천제일교회, 인천연수제일감리교회 등 한국의 주요 교회에서의 특별강연, 한양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등에서의 특강을 통해 굿윌 미션을 한국 교계와 대학생들에게 소개하여 보다 많은 교회와 대학생들이 굿윌의 좋은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강영우 박사는 KBS 프로그램 “사미인곡”에서 특집으로 다루어 졌으며,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4회 출연하여 굿윌을 소개하는 등 일반 대중들에게도 굿윌을 소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등의 자신의 저서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굿윌 코리아 운영을 위해 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굿윌 코리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굿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날아온 가슴 찡한 사연들...

처음 굿윌을 찾아왔을 당시 마이클 오덤(Michael Odom)은 인디애나 청각장애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성공을 하기로 마음먹은 당찬 젊은이였다. 그는 굿윌의 몇몇 지부들을 거쳐 현재 Fastenal Corporation 에서 패키징 장비를 다루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타고난 불임성과 성실한 직업 윤리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마이클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기 위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학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굿윌의 케슬턴 스토어에서 일하고 있는 로레나 살레스(Lorena Salas)는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그녀를 만나는 이들에게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한 영어와 스페인어 통번역 일과 더불어 매장 내 판매할 의류 제품들을 진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능력은 직장 내에서 그녀가 중요 멤버로서 자리 매김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뇌성 마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 장애들이 한 사람의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굿윌 인디애나폴리스에는 이런 행사도 있어요!

지난 2006년 10월 4일 굿윌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맞이하여 고객들을 위한 흥미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주 내에 위치한 30여 개의 굿윌 스토어에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독특한 할로윈 의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 것이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고풍 의상에서부터 공주풍의 드레스 그리고 발레복에 이르기까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 고객들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할로윈 파티 복장들과 액세서리들을 1.99 달러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한 매장에서 판매 되고 있는 의류와 장신구들을 이용하여 연출 가능한 독특하고 세련된 할로윈 의상 리스트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손쉽게 의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굿윌,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상륙하다...

1930년 당시 대공황으로 인하여 인디애나폴리스 주(州) 사람들의 생활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다. 지역 사회 센터들과 플러처 플레이스 감리교회에서 유치원과 메디컬 클리닉들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긴 했지만 정작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였다. 이를 인지한 알버트 스펠딩 목사는 주민들의 고민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굿윌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굿윌에 대해 보다 상세히 배우기 위해 보스턴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인디애나폴리스로 돌아왔을 때 마침내 굿윌 프로그램이 이 곳에서도 설립되었다.

오늘날 굿윌 인디애나폴리스는...

굿윌 인디애나폴리스에는 현재 2,000 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전세계 205개의 굿윌 지부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지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해(2006년) 물품 및 서비스 세일즈 활동을 통해 약 5,200만 달러(한화 478억 4천만원)의 총 매출 수익을 올렸다. 또한 굿윌 인디애나폴리스는 이 지역 반경 70마일 내에 위치한 29개의 군(county)들에도 각종 굿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굿윌 인디애나폴리스는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THE INDIANAPOLIS STAR/CAREERBUILDER.COM CAREER DIVERSITY FAIR)에 다른 유명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참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굿윌 인디애나폴리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의 취업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회성의 자선이 아닌 중장년층을 비롯한 젊은 계층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굿윌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발전하는 굿윌, 변하는 사회

세신교회 고등부 이 찬 행


굿윌 서울 매장

(세신 감리교회 소재)이 근처 목동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비영리 기구로 근처 학교에서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기증품에 교복이 있어 굿윌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박수희 학생은 “교복이 작아졌지만 새 교복을 사기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굿윌에 기증된 교복이 있었다”며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굿윌은 매장의 직원으로 장애우 및 사회의 소외계층 사람들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직업재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매장의 직원으로 일을 해온지 1년 반이 된 장애우 박미정 씨(30)는 굿윌이 없었다면 이렇게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의지를 보였다.

굿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굿윌이 더욱 성장하면 우리 사회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수희 학생은 “한국인에게는 남들이 입었던 옷, 남들이 썼던 물건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교회의 신도들은 현재 봉사 차원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간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굿윌 매장이 생기고 하나의 큰 비영리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아연 청년은 “작아진 옷 같은 것을 버리기보다는 손질해서 기부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며 “우리가 불우이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굿윌에 물품을 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굿윌 서울매장 운영자는 “본 교회에 굿윌 매장이 들어설 때 담임목사님의 취지는 크게 보자면 소비지향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를 좀 더 근검절약을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데 있었다”며 “미국사회에서는 기부가 생활화 돼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기부된 물품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이 많다. 아예 쓰지 못할 물건임을 알면서도 버리기가 귀찮은 마음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부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굿윌 매장이 더욱 발전해 나가려면 기부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 그릇, 넘치는 그릇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고 명 진

유대인 속담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한 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다. 그 앞에서는 자기를 과시할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에 그 앞에 나아갈 때는 빈 그릇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앞에 설 때면 ‘니강 내강’ 도토리 키 재기이다. 그 앞에서 울어봤자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자주 만나고 싶어 하겠는가? ‘웃어봐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봐라! 사람들은 다 떠나고 너 혼자가 될 것이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빈 그릇으로 서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넘치는 그릇으로 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잇속을 먼저 챙기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랑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자기 아픔을 먼저 얘기하고자 하면서 정작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거나, 상대의 아픔을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다.

그러나 자기를 한 수 아래로 낮추고, 상대의 자랑을 덩달아 들뜬 마음으로 들어주고, 상대의 아픔을 나눠서 짚어지는 경험을 해본다면 인생에 새로운 면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 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자기를 살찌울 것만을 생각하는 욕심으로부터 탈출하여 자기도 이웃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나누어줄만한 재능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어있는 그릇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넘치는 그릇임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지평을 확인하게 된다. 역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어 그 빛으로 오히려 이웃을 밝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거든, 굿윌스토어 'GoodWill store'를 방문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자선이 아닌 기회요!』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지원 아래 2005년 7월 4명의 직원으로 시작된 수원 굿윌은 2년 9개월만에 14명의 직원으로 가족이 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굿윌을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는 희망이 분수처럼 솟아오른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가끔 굿윌스토어를 방문할 때마다, 심신은 불편하지만 오히려 ‘넘치는 그릇’으로서, 비장애인들을 맞이하는 환한 미소가 나를 깨우친다.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넘치는 그릇으로 서 있는가?’, ‘이웃들로부터 무언가 얻어서 내 빈 곳을 채우려는 욕심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가?’ 굿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전해주는 신실한 우편배달부이다. 



기부 이야기

굿월코리아 부산지부 스토어 매니저 권 순 덕


한국에서 처음으로 2003년 4월 부산굿월이 호산나교회의 후원으로 설립해서 장애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스토어를 개장하게 되었다. ‘어머니 여기 옷 가게가 있었네? 구경 좀 할게요, 그런데 이 물건들은 새 것이 아닌가봐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돌아서서 나가는 손님의 말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순간 굿월의 나아갈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지나 장애인들을 위해 굿월이 세워 졌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다.

우리의 선대들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헌옷을 물려받아 입하면 무병장수 한다며 이집 저집 아이들의 옷을 얻어다 입혀곤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새것을 선호하고, 우리의 부모들은 제일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는 자녀들마저 새것과 브랜드가 아니면 아예 물건 취급을 하지 않는 세대로 바뀌어 버렸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입었던 의류를 기부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친한 사람도 아닌데 우짜 입었던 옷을 주노?”라며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오해 받을까 주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남모르는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쩔쩔하다며 선뜻 내어놓지 않았다. 부산은 유난히 미신이 많은가 보다.

굿월에 기부된 가구를 사가시면서 열심히 손을 꼽아 보신다. 손 없는 날을 알기 위함이었다. “우짜노 오늘은 안 된다. 손이 있거나 집안에 물건이 들어오면 큰 일 난데이”라는 이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손님, 일단 여기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잠깐이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증 합니다. 왜냐 구여? 이곳은 귀신 잡는 예수님이 운영 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ㅎㅎㅎ” 그러면 손님도 “글나?”하며 물건을 고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텔레비전 및 많은 기부 단체에서 아껴 쓰고, 나눠쓰고, 다시 쓰고, 바

꿔 쓰자는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품을 기부하기를 꺼려하던 그들에게 다갈 갈수 있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많은 분들이 물품을 기부해 온다. 이렇게 기부 받은 물품을 분류하고 잘 손질한 후에 판매가 이뤄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께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그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희망으로 비춰졌으며 이렇게 온정으로 수집된 물품으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일은 하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던 이들에게 별 쓸데없는 물건을 기부하게 되므로 선행을 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며 머쓱해 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들은 또 다른 분들께도 이처럼 좋은 일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 사람 한사람씩 굿월의 동역자로 동참해 주시어 한달 평균 20~30건이던 기부가 지금은 무려 평균 150~200건으로 그 횟수는 나날이 증가하였다.

굿월에 기부된 여러 종류의 물품이 구매자들에게 의미 있는 행복을 갖게 해 준다. 어느 임신부는 3개월에 걸쳐 출산 용품을 모두 준비 했다면 너무나 행복해 하였다. 새 옷으로 인한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어느 주부는 이사하면서 집에 들어 놓은 가구며 갖가지 물품이 너무 예쁘다며 집들이 할 때 온 손님들이 부러워했다고 자랑 하였다. 그들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굿월을 이용하고 있으니 흐뭇하기만 하다. 이렇게 굿월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매장에는 단골손님이 많아졌다. 그들은 누가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구입 했느냐며 수다를 떠다.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바쁠 땐 너나 할 것 없이 손 건어붙이고 일손을 거든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이 있기에 오늘도 굿월은 화이팅을 외친다. 

굿월이 그리는 세상




굿월과 함께하면 “행복해 집니다”

권 동 희 (굿월코리아 수원지부 직업훈련생, 정신지체장애 1급)의 어머니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희는 복지관 다닐 적에는 늘 용돈이 부족했지요. 복지관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복문에 단골 분식점에 들러서 가곤 했어요. 또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것을 사

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굿월에 다니면서 아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언젠가 동희에게 “아들이 굿월에 다니니까 행복하니?”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럼 행복하지”하며 대답할 때가 있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팽 돌 정도로 감동이 되었지요. 동희를 굿월에 보낸 뒤로는 동희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변한 것이 있었는데요. 전 보다 마음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심하며 걱정 한 것이 아들의 변화이었는데 굿월에 다니면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저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굿월이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 우리 장애아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며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5년 동안 다치기 전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굿월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희가 굿월에서 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큰 청지기 일을 감당하며 일하는 동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희가 더 많이 변화가 되어서 배우자도 만나길 바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장애가 장애로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단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요한복음9:3) 하나의 도구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굿월의 앞날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중앙교회 담임목사님과 원로목사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은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요!

굿월코리아 부산지부 스토어 매니저 권 순 덕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요일이 팀장의 한 달에 한번 쉬는 월차일이다. 수요일 저녁 팀장의 빈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장애인직원 작업활동, 거래처 납품, 기타 등등.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고 퇴근을 하려는데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이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에 약국에 들러 간단히 복용약을 사서 한입에 털어 넣었다. 함께 근무하시는 케서 장선생이 몸이 불편하여 병가를 내고 치료중이므로 한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었다. 게다가 팀장도 과중한 업무로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안과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약을 먹고 자면 괜찮겠지 하고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문을 두드렸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각종 검사, 통증과 굿월격정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었다. 팀장의 휴가와 케서선생의 병가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병원신세를 지게 되다니... 아픔도 아픔이지만 굿월의 직원들을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면 장애인 친구들이 불안해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걱정도 잠시였다. 남아 있는 사무직원과 할아버지 직원 그리고 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손발을 맞추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휴~~ 얼마나 다행인가 역시 굿월이야... 하는 믿음이 생겼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난주 교회 3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란 주제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혜?)을 받는 듯했다. 말씀보다는 그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 더 깊은 감상에 빠져들었다. 어려운 시절 살아오

면서 오늘에 이룬 드라마틱한 성공스토리, 땀!라고 구라!같은 인간시대 체험이 일부 층에게는 끔찍(동감), 또 어떤 층에게는 어~정말?(호기심)...

감동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머릿속으로 메트릭스를 그려보았다. ‘부자 집 애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건 감동이 안 되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거야. 그런데 부자 집 애가 만약 홍정망정 살다가 사고나 치면 사람들은 욱하겠지. 그렇다면 결국 부자에게서는 감동이 나오지 않는 거군. 부자는 편하게는 살겠지만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군. 반대의 경우, 만약 가난한 집 애가 사고나 치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하겠지만 적어도 욱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애가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거다. 그래, 진정성은 역경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마도 과거 김진홍 목사님의 삶이나,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 주는 감동이 이런 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은 사실, 또는 있는 그대로의 일 그 정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무언가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뜻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진실이 우리나라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언가 아픔, 고통이 수반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렇다면 가장 큰 아픔, 가장 깊은 고통은 무엇일까? ‘장애’가 아닐까?

장애우를 돕기 위한 교회 내 굿월 매장이 우리에게 대단한 자랑거리요 자부심이다. 간혹 매장 안에서 일하는 장애우를 보면 터더욱 이런 일들의 실체를 상상하게 된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생각나기도 한다. 어느 순간 세신교회의 브랜드처럼 되어버린


세신교회 안 철 경 권사

‘Goodwill’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굳이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에 대해 세상이 친화력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통해 조금씩 세상에 그리스도의 온기가 스며들지 않을까,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교회의 진정성은 무엇일까? 요즘같이 메스컴을 통해 연일 명되고 있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언짢다. 왜일까? 교회가 아픔, 가난, 슬픔, 장애, 진정성, 진심 이런 거 보다는 이들을 수단으로 성공, 일류, 부자, 건강, 추진력 이런 거를 더 높이 사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진정으로 건강한 편에선 교회와 교인들이 비난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가슴이 언짢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국민가요처럼 불러도 저들은 ‘뽕이야’ ‘구라삼삼’이라고 교회와 거리를 둘지도 모른다. 점점 가슴에 감흥없이 흥얼거리는 곡조가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상이 사랑을 말하고 모든 종교가 사랑을 최고의 지선으로 추구하고 그중에서도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도구로 세상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어느 순간 교회가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은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다.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의미있는 실체요 행동이다. 간혹 봉사활동 한답시고 장애시설을 방문하여 목록시켜주고 청소해주고 밥먹여주고 산책해주고...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에 어울리는 사랑으로 과연 우리의 삶이 저들을 대하고 있을까? 하나씩 따져 보면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성한 사람의 의무감에서 내공을 쌓는 수단으로서 단지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걸 보며 정말 진정한 ‘사랑’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사랑없어도 충분히 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수반한 현신은 정말 어렵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하신 것이 아닐까.

굿월 매장이 교회의 단순한 홍보용, 브랜드, 자랑거리,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사랑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깊은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이웃에게, 그들의 빈공간을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터널이 되었으면 한다. 굿월이 진정성있는 사랑의 실체가 되길 기대해본다. 

국월 이모저모

부산 국월

지난 행사 및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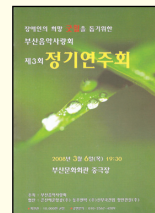
- ▶ 전직원 제주나들이
제주 오로타리클럽(회장 반석 고상호)과 부산 오성로타리클럽 (회장 도란 임춘이)의 초청으로 2월 15일(금)~16일(토) 1박2일 다녀왔습니다.
- ▶ 제3회 국월동기 부산음악사랑회 정기연주회가 3월 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 ▶ 삼성전자서비스와 함께하는 국월아울렛장터 개장.
3월 20일(목)~22일(토)
- ▶ 장애인 직원 신규채용 2월1일부터 2명 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사 및 소식

- ▶ 앞으로 있을 행사
▶ 부산국월코리아 창사5주년 기념식
- 4월 25일(금) 11:00시 부산국월스토어에서 있습니다.
- 주)세정 인디안과 함께하는 '국월아울렛장터' 도 24일(목)~26일(토) 병행해서 열립니다.
- ▶ 5월 15일(목)~17일(토)까지 3일간 'KT서부산지사와 함께하는 국월아울렛장터'가 열립니다.

소식

- ▶ 부산국월코리아에서는 장애인 이력서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 접수시에 부산국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영위원의 명단은 국월홈페이지 www.goodwillkorea.com에 있습니다.)
- ▶ 장애인 직원의 증원으로 인해 제2작업장을 증설했습니다.
- ▶ 부산국월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기구매자'가 되어 주셔서 피부관리도 하시고 국월의 귀한 사역에 협력자도 되어 주십시오.
- ▶ 국월명품 아울렛행사는 매월 셋째주 목~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국월

지난 행사 및 소식

- ▶ 가족과 함께하는 양천구 알뜰가정 베품시장참가 (9월~11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리는 장터입니다
- ▶ 남서민우회장터 참가
- ▶ 겨울용품 50% 할인행사(1월)
- ▶ 영어동화책과 테잎 할인행사(1월14일~19일)
- ▶ 겨울니트 1000원 행사
- ▶ 양천구소재 학교교복 판매행사
- ▶ 자원봉사해주신 중고생과 대학생, 일반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행사 및 소식

- ▶ 민우회와 함께하는 베품시장
- 장소 : 양천문화회관 분수대주변
- 일시 : 2008년 4월 26일(토) 오전10시~오후3시
- ▶ 일일 바자회(5월17일)
- ▶ 5000원 한아름행사 (5월중)
- ▶ 자원봉사 원하시는 분들의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 국월

지난 행사 및 소식

- ▶ 미국국월 파견 사진사 Rechara Lord -훈련생 권동희 집 방문
- ▶ 미국국월 파견 사진사 Rechara Lord 수원국월방문 매장, 작업장 촬영
- ▶ 직원 및 훈련생 영화감상 ▶ 울산국월 예정지 이맹진 간사방문
- ▶ 수원 원천침례교회 홍보 및 판매 ▶ 수원국월 운영위원회
- ▶ 기독교신문 국월 기사 수록 ▶ 수원국월방문
- ▶ 국동방송 - 오후3시5분 '참 좋은 내친구' - 수원국월방문
KBS1 TV오후 4시 '사랑의 가족' 방영
- ▶ 컨베이어벨트 입고 & 강태원 복지재단 방문
- ▶ 치킨포장지 근 묵는 작업위해 5,000장 및 기계입고

앞으로 있을 행사 및 소식

- ▶ 국월 직원 및 훈련생 채용
- 현재 훈련생으로 근무 중인 유미영을 3월 중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
- 상반기에 훈련생을 4명 채용할 계획
- ▶ 신규 사업 아이템 진행계획
- 치킨 포장봉투 끈 묵는 작업
- 교회 실업인위원회 / 서울, 부산 국월, 울산 등 다각적인 아이템 모색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준비

행복을 함께 나눌 봉사자가 되어 주세요~

1.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물품을 기부해 주세요!
(의류, 악세사리, 모자, 가방, 스포츠용품, 헬스용품, 가전제품, 학용품, 완구 및 어린이용품, 책, 가구, 기업 이월 상품 등)
2. 국월에서 자원봉사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 물품정리, 매장도우미, 작업장도우미, 운송도우미, 문서도우미, 전문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국월의 후원 업체로 협약을 맺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4. 일정액 혹은 특정액의 후원금으로 국월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5. 국월의 매장을 더욱 많이 이용해 주세요!
(국월 매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품기부 방법

1. 직접 국월 매장을 방문하셔서 기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2.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택배비를 지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국월 매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수거하러 즉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눌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월코리아 부산지부 www.goodwillkorea.com

후원계좌 : 부산은행 023-01-036124-7 농협 944-01-159063
국민은행 943601-01-032724 우리은행 407-149530-13-001
(예금주 : 국월코리아 / 국월코리아사회복지호산나)
*홈페이지의 기부신청을 이용하세요.

국월코리아 수원지부

후원계좌 : 국민은행 203901-04-107981 (예금주 : 수원중앙침례교회(수원국월))
* 직접기증 : 수원 국월스토어 매장, 중앙침례교회 복지사역팀
- 화요일~주일 : 오전 10시~6시
* 방문수령 (물품이 종이 박스로 5박스 이상일 경우)

국월코리아 서울지부(목동) www.goodwillseoul.com

후원계좌 : 하나은행171-910002-18805
국민은행 514201-01-01798
씨티은행 124-51165-242
(예금주 : 세신교회 국월)
* 직접기증 : 서울국월스토어 매장
- 월요일~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
* 방문수령 (기증품이 종이박스로 5박스이상일 경우)

국월코리아 사업본부

후원계좌 : 외환은행 298-22-01031-6
(예금주 :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국월 연락처

국월코리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511-21번지 가브리엘선교회 국월스토어
Tel. 051-293-9104 Fax. 051-294-9104
E-mail. goodwillkr@paran.com
Homepage. <http://www.goodwillkorea.com>

국월코리아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통 144번지 중앙침례교회 국월스토어
Tel. 031-229-9068, 9191(매장) Fax. 031-229-9076
E-mail. vision63@hanmail.net
Homepage. <http://www.central.or.kr>

국월코리아 서울지부(목동)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2-2 세신감리교회 국월스토어
Tel. 02-2061-9191 Fax. 02-2644-6493
E-mail. kheeey63@hanmail.net

국월코리아 사업본부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27-1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국월코리아 사업본부
Tel. 02-389-7340 Fax. 02-353-5404
E-mail. contactus@goodwillkorea.or.kr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마더테레사-

내가 아는 한가지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